

ARM 매각설에 반도체 업계 초긴장...생태계 붕괴 우려

소프트뱅크, ARM 재매각·상장 검토

여기에 30년 된 밀가루 회사가 있다. 세계 모든 빵집들이 이 회사의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과 과자를 만들었다. 한 빵집은 식빵을, 다른 빵집은 단팥빵을, 또 다른 빵집은 마카롱을 만들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밀가루를 팔던 이 회사를 모두 좋아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4년 전부터다. 우유를 팔던 회사가 비싼 돈을 주고 밀가루 회사를 사들였다. 이 회사는 밀가루를 더 많은 곳에 비싸게 팔아 본전을 챙기고 싶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이익이 적다는 것을 깨달은 이 회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밀가루 회사를 다시 팔려고 한다.

지금 빵집들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행여라도 다른 빵집이 밀가루 회사를 사버린 뒤 우리 빵집에 밀가루를 안 팔까 걱정한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바다 건너 빵집에서 밀가루 회사를 사들여도 문제다. 바로 반도체 칩 설계 전문업체 ARM 이야기다.

■ "소프트뱅크, ARM 재매각·상장 고려 중"

ARM은 여러 반도체 회사에 저전력 반도체 설계도와 명령어셋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회사다. 현재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IoT(사물인터넷) 기기, 자동차, PC와 서버까지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2016년 243억 파운드(약 35조원)를 주고 인수한 ARM을 재매각하거나 상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코로나19 영



향과 위워크 관련 투자 손실로 2019 회계연도에 7천500억엔(약 8조4천500억엔)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비전펀드 역시 1.8조엔(약 20조300억엔)의 손실을 입었다.

이외에도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에 대한 투자로 800억엔(약 9천억엔)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 손실액을 합치면 약 2조6천300억엔(약 30조원)으로 2016년 ARM 인수 대금에 약간 못 미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 부진한 IoT 사업..매출 압박에 시달렸다"

소프트뱅크는 IoT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ARM을 인수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2016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IoT는 기회이고 ARM의 미래 성장 여력을 감안하면 저가에 인수한 것"이라며 "ARM 인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IoT 시장의 성장세는 소프트뱅크의 기대에 미

치지 못했다. 결국 ARM은 이달 초 IoT 사업 부문인 'IoT 플랫폼'과 'IoT 트래저 데이터'를 소프트뱅크 그룹 계열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ARM에는 반도체 설계 부문만 남겼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피인수 이후 ARM은 엄청난 매출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글로벌 반도체업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각 반도체 회사에서 명령어셋과 아키텍처에 대한 이용료를 일정 주기로 거둬들이면 되는 너무나 안정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소프트뱅크 인수 이후 투자액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ARM 외부로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 ARM 중국 지사 지분 51%, 중국 정부가 보유

ARM의 중국 사업 구조도 실적 문제를 낳는 원인이다. 2017년만 해도 ARM 전체 매출 중 중국 시장의 비중이 20%에 달했고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중 95% 이상이 ARM 아키텍처를 이용했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는 2018년 ARM의 중국 사업 지분 중 51%를 7억 7천520만 달러(약 8천306억엔)에 중국 정부에 넘겼다. ARM 인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시 유력한 이유로 꼽혔다.

수능 불가능

소프트뱅크가 ARM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ARM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다시 말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지 않는 기업이 ARM을 인수하는 것이다.

■ 이해 관계 없는 제3자인

그러나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

▲ 2016년 ARM을 인수했던 소프트뱅크가 재매각을 고려중이다. (사진=씨넷)

소프트뱅크가 ARM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ARM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다시 말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지 않는 기업이 ARM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

그러나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

서 선뜻 35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찾기 힘들다. 또 ARM 인수시 지불한 243억 파운드 이상을 챙기려는 소프트뱅크와 대금을 깎으려 하는 인수 후보자의 입장 차이로 무산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의외의 인수대상자로 인텔이나 AMD를 꼽는다.

그러나 이 사안을 오래 지켜 본 한 관계자는 "인텔이 ARM을 인수할 경우 반독점법에 따라 기업분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AMD의 시가 총액은 640억 달러(약 74조원)지만 실제 현금 보유액은 15억 달러(약 1조 5천억엔, 2월 기준)에 불과해 인수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특정 기업 인수시 ARM 생태계 붕괴 우려

특정 반도체 기업이 ARM을 인수하고 'ARM 아키텍처 독점'을 선언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쟁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ARM 라이선스 거부를 발동하거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벌이면 30년간 금지되었던 ARM 생태계는 자연히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

동시다발 트위터 해킹

오바마 · 빌 게이츠 · 머스크도 털렸다



■ 美 유명인 계정에 '사기 메시지' 떠

세계 3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15일(현지 시각) 해킹을 당했다. 미국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메시지로 뒤덮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zos 아마존 CEO 등이 공격 대상이 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해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10여명의 유명인사 계정을 상대로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유명 인사 계정을 탈취해 '비트코인(가상 화폐) 1000달러(약 120만원)를 보내면 2000달러를 돌려주겠다'는 식의 메시지와 함께 비트코인 송금 정보를 띄우는 방식이었다. 이 가짜 메시지에 속아 트위터 이용자 300여명이 이날 3시간 동안 11만 8000달러(1억40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끼리 암호 화해 거래하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수신자를 추적해 환수하기는 불가능하다. 해커의 신원은 수사 당국이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은 일단 10여 메시지 내용이 서로 똑같은 데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볼 때 초보 수준의 개인 해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달러 공급이 끊겨 비트코인 확보에 사활을 건 북한이나 러시아-이란 등 적국(敵國)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팔로워 3700만명을 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에 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처음 떴다. 같은 메시지가 빌 게이츠, 우버·애플 등 IT 기업 공식 계정, 유명 래퍼 카네이 웨스트 계정에도 등장했

다. 오후 5시부터 제프 베zos,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바이든 전 부통령, 투자가 워런 버핏,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계정이 차례로 털렸다.

트위터 측은 해킹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6시 예약해당 계정들을 봉쇄하고 일반 서비스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날 트위터 측은 사기 메시지들을 지웠지만 일부 계정에서 몇 차례씩 다시 뜰 정도로 해커의 공격은 끈질겼고 트위터는 속수무책이나 다름 없었다.

연방수사국(FBI)과 검찰은 해커들이 개별 사용자의 암호를 훔치는 방식이 아니라, 트위터 내부 정보망을 통해 직접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위터는 브리핑에서 "조직적인 공격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트위터 직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고 했다.

수사 당국은 일단 10여 메시지 내용이 서로 똑같은 데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볼 때 초보 수준의 개인 해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달러 공급이 끊겨 비트코인 확보에 사활을 건 북한이나 러시아-이란 등 적국(敵國)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반(反)트럼프 진영의 정치인과 기업인이 집중 공격당한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 빌 게이츠는 민주당 성향이고, 베zos는 반(反)트럼프 기조가 강한 워싱턴포스트(WP)의 소유주다. 카네이

웨스트는 트럼프 반대를 외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머스크는 그런 웨스트를 지지했다. 팔로워 8357만명을 가진 트럼프와 공화당 인사들의 계정은 공격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트위터의 직원이 양심을 품고 트럼프 계정을 11분 동안 삭제한 뒤 트럼프의 계정이 특별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공격이 실패했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 계정이 동시에 털린 초유의 사태에 미국은 경악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이 소셜미디어 소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의 취약한 보안이 글로벌 리스크로 떠올랐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계 안보와 정치·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1월 미 대선날 적국이 유명 정치인 계정에 들어가 투표 상황에 대한 가짜 정보를 흘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트위터에선 심각한 보안 사고가 종종 있었다. 2013년 AP통신 계정에 '백악관이 공격받았다'는 가짜 속보가 뜨면서 증시가 폭락했고, 2019년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계정이 인종차별과 폭탄 테러 위협으로 뒤덮이는 해킹을 당했다. 미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계정이 해킹돼 민감한 정치·안보 관련 가짜 정보가 퍼졌다면 세계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다.



▲ 인텔이 Arm 인수에 나설 경우 반독점법 적용대상이 된다. (사진=인텔)



▲ 후지쯔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 Arm 기반 프로세서로 작동한다. (사진=Arm)



▲ 2016년 Arm 테크콘 행사에 참석한 소프트뱅크 손 회장. (사진=Arm)